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멀티 리자드형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4일까지 홍콩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886회'를 총 3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추가 리자드 옵션에 따라 모든 기초자산이 설정 이후 6개월간 최초기준가의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연장

NH투자증권은 모바일증권 브랜드 '나무'의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2019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벤트 대상은 '나무'의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가운데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고객이며, 유관기관 제비용은 제외다.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가져온 고객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타사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규계좌 개설 후 그 다음주까지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매주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주식 첫 거래'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예탁원 등 7개 기관-부산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개설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지역 7개 이전기관과 부산시는 1일부터 정부 중점 추진 정책인 부산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하는 '시민 제안 홈페이지'를 공동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참여하는 7개 이전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順) 등이다.

'시민 제안 홈페이지'는 기관별 홈페이지 내 링크 혹은 주소 입력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기관 업무 소개,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제안 가능 분야별 안내, 제안 작성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엄지 기자

지분율↑ 배당성향↓… 기관이 좋아할 주식 사라

증시에 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바람

국민연금, 저배당·관리기업으로 남양유업·현대그린푸드 등 꼽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 책임 원칙)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 확대 여지가 있고,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가 유망하다는 것. 지주사 역시 대표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수혜주로 꼽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임명되면 지난 7월 30일 도입을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증시의 할인요인으로 거론돼 온 '낮은 배당성향'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정책 등의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고, 2020년까지 미개선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발족해 주주권 행사시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책임을 이행하는 광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3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해야 한다.
원칙4	투자 대상 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하이투자증권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13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큰 변화다. 아울러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223개 자산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7% 남짓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배당성향 확대에 따라 주가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올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꼽은 바 있는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꾸준한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배당성향은 6.2%에 불과하다. 코스피 평균(16.02%)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도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우기술을 추천하며 "다우기술의 최대주주는 김익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우데이타라는 상장사인데 그동안 지배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는 다우데이타가 다우기술을 빼먹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의결권 강화부터 시작해 오너중심적 경영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할인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2%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주 중에서는 지주사 중심의 투자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주사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롯데지주, 오버행(잠재적인 과잉물량 주식) 해소 및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이 큰 삼성물산 등을 추천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건설기능인 양성·취업연계 'LH 소명터'

LH, 교육생 26명 선발·입교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젊은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LH 소명터'를 설립했다.

1일 LH에 따르면 'LH 소명터'는 '작은(小) 명장들의 키움터'라는 의미로, 지난 9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청년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들 중 26명의 1기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달 28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입교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LH 소명터' 입교식에 참석한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앞줄 왼쪽 4번째), 김영승 전문건설협회 실장(앞줄 왼쪽 2번째),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사(앞줄 왼쪽 5번째), 권동현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앞줄 왼쪽 7번째) 및 1기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이번 교육과정은 생활밀착형 수익 공종인 타일, 방수, 단열, 도배, 창호, 소방설비 등 6개 공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LH에서 운영 중인 건설품질명장 지도하에 현장실무 중심의 기능 인력을 단기간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품질명장제도는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기능인의 손끝 기술을 활용해 주거품질을 높이고 하자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LH에서 도입한 체계다.

이 제도는 ▲주택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력 전문교육 ▲기능인 등급제 시범운영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엔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채신화기자 csh9101@

호반건설 대표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 선정

미래에셋대우는 1일 호반건설의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KB증권과 함께 호반건설의 2019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 내 주력회사인 호반과의 합병도 함께 추진한다.

호반은 2017년 매출 2조 6000억 원, 영업이익 79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도 13위로 그룹 내 선두를 지키고 있다. 호반건설은 매출 1조 3000억 원, 영업이익 1900억 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대우 기승준 ECM본부장은 "합병을 통해 외형 면에서는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4분기 오피스텔 9400여실 분양

경기 2369실·서울 2151실 등 수도권에 6250실 66% 몰려

올해 4분기 전국에서 9400여 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 등 유망지역에선 꾸준히 물량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은 총 9406실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분양물량의 66% 이상인 6250실이 몰려 있다.

경기도가 2369실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며 이어 서울 2151실, 인천 1730실 등이다.

이외 지방에서는 대구(1291실)와 울산(1116실) 부산(749실)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이는 수도권에서 1분기 1만8848실, 2분기 2만1775실, 3분기 1만3121실이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탓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는 꾸준히 분양물량이 나오고 있다.

올해 1~3분기까지 유망지역에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았다.

피데스개발이 지난 5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총 622가구 모집에 6만5546건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싱글남여 300명 20일 '단체미팅'

GS건설 '로맨틱 그랑서울' 개최

GS건설이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는 20일 종각 그랑서울 몰에서 싱글직장인 단체미팅 이벤트 '제11회 로맨틱 그랑서울'을 개최한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부제는 '로맨틱 할로윈(Romantic Halloween)'으로 그랑서울 몰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며 인연을 찾는다는 의미다. 참가 대상은 25세부터 35세까지의 싱글남녀로, 15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동성 2인1조로 그랑서울 몰 내부에 있는 제휴된 음식점(다쯔미, 크레이지 후라이,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e), 아티제, 사보텐, 탭퍼블릭 등)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음식점에 입장하면 스텝의 안내에 따라 남녀 2대2 비율로 자리가 배정되며, 음식과 맥주가 무제한 제공돼 자연스럽게 음식을 맛보면서 이성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

행사장 중앙에는 할로윈데이를 기념한 포토존 이벤트, 남녀 참가자들의 연락처 교환율을 높이기 위한 러브커넥트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서는 할로윈데이를 기념한 다양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채신화 기자